

코로나 19시대 종교현상학의 이슈와 기독교사회윤리학의 테제들

이상철(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I. 들어가는 말

II. 코로나 19시대 종교현상학

1. 비종교사회의 도래
2. 종교적 아우라의 파괴
3. 예배의 재구성

III. 코로나 19시대 기독교사회윤리

1. 세속화와 함께하는 기독교사회윤리
2.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기독교사회윤리
3. 타자에 대한 환대를 지향하는 기독교사회윤리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49.03>

* 주저자, jonah1000@hotmail.com

• ABSTRACT •

The Issues of Religious Phenomenology and the Topics of Christian Social Ethics in the COVID-19 Era

Director, Lee, Sang Cheol(Christian Academy)

This paper explores the problem of religious phenomenological approaches to COVID-19 in the first half and Christian social ethics in the second half. The religious phenomenological approach is based on a survey of Korean Protestants' perceptions during the COVID-19 era. Looking at how Protestant faith patterns changed in the wake of COVID-19, I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us phenomenology after COVID-19 as 1) the arrival of non-religious societies, 2) the destruction of religious aura, and 3) the reconstruction of worship. The suspension and disruption of worship due to COVID-19 is read as an incident that Korean society has entered the threshold of non-religious society. Bonhoeffer's "Before God, with God, without God" statement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clue to interpreting non-religious society after COVID-19. The increase in non-face-to-face online worship triggered by COVID-19 has collapsed the aura of existing worship, and existing one-way worship services are being aske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o change the form of worship. After the religious phenomenological analysis, I will propose three alternatives to the COVID-19 era: (1) Christian social ethics suitable for the secular age, (2) Christian social ethics overcoming anti-intellectualism, and (3) the ethics of hospitality toward others.

Key words: COVID-19, religionless Christianity, decay of the aura, Christian Social Ethics, the Other, hospitality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¹⁾

I. 들어가는 말

코로나 19는 2020년 한해를 기억하는 유일한 사건이고 단 하나의 기록이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현대문명의 취약점을 여과없이 드러내보였다. 1년 내내 각 분야에서 코로나 19를 둘러싼 진단과 예측이 이루어졌지만 뾰족한 새로운 대책과 청사진이 보이지는 않는다. 개신교계에서도 코로나 19 이후 세계와 교회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다.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 크리스찬아카데미와 한국교회협의회(NCCK)가 공동기획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 19이후 한국사회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금 진행 중인 연속토론회이다.²⁾

토론회의 반환점을 둔 현재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Post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종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코로나 19는 이전과는 다른 종교적 지평과 플랫폼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 대전환을 예감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시기를 맞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동안 미루어 왔던 한국교회의 갱신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 19로 인해 도적과도 같이 도래한 것은 아닐까. 비상한 영감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다.

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코로나 19를 둘러싼 종교현상학적 분석을 시도한 후에 그에 따른 믿음의 변화, 그에 걸맞는 윤리적 방향모색을

1) Yuval Noah Harari, Financial Times, 2020.03.20, "The world after coronavirus"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최종검색일 2021.4.12)

2)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daemuna.or.kr/ko/node/15624>

본 논문에서 도모할 것이다. 종교현상학적 분석은 코로나 19를 대하는 한국 개신교인의 인식조사와 근래에 진행된 개신교인 신앙양태 관련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다. 그 결과를 추적하면서 개신교인의 신앙패턴변화가 코로나 19를 계기로 속도를 내어 확연히 다른 지평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우리 삶과 의식은 믿음의 형태와 방식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윤리적 행동과 선택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II. 코로나 19시대 종교현상학

1. 비종교사회의 도래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현장예배 중단과 비대면 예배를 둘러싼 개신교인 인식조사가 몇 차례 시기별로 진행되었고, 그 변화의 추이를 통해 한국개신교의 현재와 미래를 현상하는 것이 이장의 목적이다. 아울러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비로소 전개되는 비종교화문제와 연관됨을 드러낸다.

1) 코로나 19 개신교인 인식조사

제일 먼저 발표된 개신교인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2020년 2월 24~25일 남녀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이다. 조사가 이루어졌던 시기는 2월 18일 31번 확진자(신천지 교인)가 등장하고 코로나 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시기였다. 개신교인들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주일 대예배 중단’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찬성했다. 반대는 24%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전체 응답자의 65%가 코로나 19는 ‘단순한 전염병일 뿐이다’고 답했고, 일부 극우적 성향의 목사

들의 발언에서 나오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란 답은 7%에 그쳤다. ‘인간의 탐욕을 반성하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해 성찰할 기회’라는 답은 28%로 나왔다.³⁾

3월 한 달 동안 보였던 대면 예배 감소 추세는 4월 12일 부활절에 붕괴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종려주일 4월 5일 예배가 34.5%였던 것에 비해, 부활절이었던 4월 12일에는 59.7%가 현장예배를 드린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시간이 갈수록 완화된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공예배 참여와 주일성수에 대한 불문율이 깨어진 것은 한국개신교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조사기간: 2020년 4월2일~4월 6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개신교인 1000명)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를 진행하였다.⁵⁾ “주일 현장예배 중단”을 묻는 항목에서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87.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8.2%, ‘잘 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4%로 조사되었다. 2월말 조사보다 주일 현장예배 중단에 대한 긍정지수가 17.8%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19를 전제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일예배의 온라인 예배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54%가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40.7%는 ‘주일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3) 도재기, 경향신문, 2010.02.27., “주일예배 중단, 개신교인 71%가 찬성, ‘한목합’ 등 여론조사 결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1755001&code=960100(최종검색일 2021. 04.12)

4) 김지원, UPI 뉴스, 2020. 04. 14, “현장 예배 언제 재개하나…교회 고심 깊어져”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4140109> (최종검색일 2021.04.12)

5) 최경배, CBS노컷뉴스, 2020.04.10, “코로나 19 사태 개신교인들의 인식 변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325917> (최종검색일 2021.04.12)



〈그림 1〉 주일 현장예배 중단에 대한 의견

42% 응답자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22.9%의 응답자가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예배의 확산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까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부르게 판단할 수 없지만, 교인들의 예배에 대한 그동안의 굳어진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는 ‘실생활에서의 신앙 실천으로 의식 전환(24.3%)’, ‘예배의 본질 정립(21.9%)’,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21.4%)’ 등이 제시되었다. 비교적 다양한 의견이 고루 분포된 셈인데, 교회의 공적 역할, 구체적 신앙 실천 등의 항목이 부각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 19가 교회의 대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숙고하게 하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가 아닐까 싶다. 코로나 19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전체교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는 비종교사회 속에서 교회의 위상을 묻는 최초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든다.

2) 한국개신교의 비종교화

근대 이후 서구사회는 비종교 사회 속에서 종교의 개념과 의미를 몰았다. 막스 베버는 근대를 요약하면서 “주술로부터 해방되는 시기”⁶⁾라고 정의한 바 있다. 더 이상 진리는 선택하지 않고, 선택한 것이 아름답지도 않으며, 아름다운 것이 반드시 진리이지도 않다. 고·중세 시절 신의 질서와 원리에 의해 하나로 이어졌던 세계의 총체성은 근대의 도래와 더불어 허물어졌고, 진리의 원환성을 담보했던 종교의 영역은 이전의 권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근대성의 운명이라고 베버는 평가했던 것이다.

한국교회가 비종교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조짐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⁷⁾ 특별히 비종교화와 관련된 설문으로 개신교인 1000명에서 타종교의 진리관과 ‘교회 밖 구원’에 대해 물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 2> 종교 관련 각 설명에 대한 의견(개신교인 대상)⁸⁾

6) Max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서울: 나남출판, 2013), 88.

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2019년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을 정치, 경제, 통일과 평화, 젠더, 생태위기, 신앙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통계연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와 분석이 기독교사상(2019년 11월호)에 게재되었다. 필자는 정치분야 담당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위의 그림에 의하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에 ‘그렇다(58.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다’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9%로 가장 높았다. 또한,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은 악하다’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4%였다. 즉, 전반적으로 2019년 개신교인은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구원관에 있어서도 교회 밖 구원에 대해 48.9%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으나, 33.1%라는 만만치 않은 개신교인이 교회 밖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은 1982년도에도 물은 바 있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설문에서 ‘모든 종교는 기독교와 같은 진리’(8.8%), ‘기독교가 가장 우월’(25%), ‘기독교 진리만이 참 진리’(62.6%)로 나타난바 있다.⁹⁾ 종합하면, 37년 전 배타주의(exclusivism)적인 개신교에 비해, 2019년 한국 개신교는 타종교에 대한 부분, ‘교회 밖 구원’에 있어 다원주의까지는 아니지만, 포괄주의(inclusivism)로 넘어갔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¹⁰⁾

요약하면, 한국개신교도들은 근본주의에서 벗어나 포괄주의로 신앙의 형태가 전환되었고, 그 경향은 코로나 19를 지나가면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비종교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포괄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이 질문은 결론

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 주요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자료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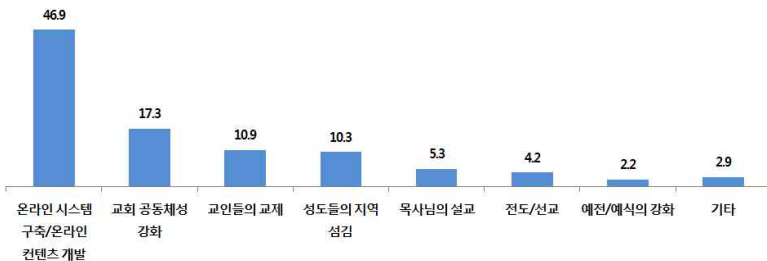
9)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 80.

10) “그리스도교 중심의 종교관이나 배타적 진리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과 현실성을 지니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타종교들의 진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흔히 배타주의(exclusivism), 포용주의(inclusivism), 다원주의(pluralism)라는 세 입장으로 정리한다.”-길희성, 『신앙과 이성사이에서』(서울: 세창출판사, 2015), 153.

적으로 윤리적 행위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본고 후반부 윤리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언급하기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코로나 19 종교적 현상의 화두라 할 수 있는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에 따른 주일 예배의 붕괴와 관련된 종교현상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는 자연스럽게 예배의 미래 혹은 미래의 예배에 대한 화두로 연결된다.

2. 종교적 아우라의 파괴

코로나 19는 교회의 정체성을 생성, 유지, 발전, 보존하는데 중핵이라 할 수 있는 대면예배를 정지시키고, 비대면 온라인예배 시대 개막을 알렸다. 주일 11시에 나의 몸이 참여하면서 드렸던 하나의 예배, 한 분의 목사님에 의해 전달되던 복음은 다중의 교회와 여러 목사들에 의해 교인들 앞에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고, 교인들은 그 사이를 유랑하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예배와 복음을 취사선택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코로나 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을 묻는 인식조사에서도 감지되었다. 개신교인들은 ‘온라인시스템 구축/ 온라인 콘텐츠 개발 (46.9%)’을 1위로 꼽았고, 목사님의 설교는 5.3%에 불과했다.



〈그림 3〉 코로나 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¹¹⁾

11)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사상, 크리스찬아카데미가 공동으로 “2020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발표 성격의 기

신도들 앞에서 많은 예배들과 목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인데, 아마도 이것이 개신교 목사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감이 아닐까 싶다. 당신들이 면대면 하면서 던지는 메시지보다 인터넷 공간, 비대면 공간에서 떠다니는 익명의 목사들과 메시지가 더 위력적이다, 라는 공포가 현실의 목사들에게는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발터 벤야민의 표현을 빌어 요약하면 ‘아우라의 파괴(decay of the aura)’¹²⁾라 말할 수 있다.

‘아우라의 파괴’는 본래 발터 벤야민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글에서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전통 미학 이론을 전복시킬 것임을 예감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여기서 말하는 테크놀로지는 구체적으로 벤야민 당시 사진술인데, 사진이 발달하면서 원본(원형 Original)에 대한 아우라에 훼손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진이 등장하면서 원본의 권위는 추락하기 시작했고, 원본과 사본 사이 관계의 혼돈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예술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급기야는 원본이 지니는 영기(靈氣)의 해체가 현대 미학론의 주된 흐름으로 등장하였는데, 벤야민은 그것을 ‘아우라의 파괴’라 불렀다.

나는 ‘아우라의 파괴’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분석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의 등장이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믿음의 체계와 은혜의 방식을 교란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결국 예배가 담보했던 영기(靈氣)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예배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회기사가 2020년 기독교사상 10월호에 “특집 코로나19와 한국 사회”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표3> 코로나 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은 2020년 기독교사상 10월호(통권 742호) 54쪽 실려있다.

12) Walter Benjamin, *Illuminations*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222.

3. 예배의 재구성

1) 종교적 공간의 초텍스트성과 쌍방향성

예배학자 테레사 베르거가 쓴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¹³⁾ 는 예배에 대한 동일한 고민을 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예배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온라인 예배와 전통적 예배 사이 경계가 부각되고, 디지털 시대 예배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테레사 베르거는 온라인 예배의 특성을 초텍스트성과 쌍방향성으로 요약한다: “온라인 예배의 리조매틱하고 초(超)텍스트적인 성격은 디지털의 멀티미디어성에 의해 강화된다. ... 멀티미디어성은 그것이 갖는 거의 즉각적이고 쌍방향적이며 깊이 몰입하게 하는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선례가 없는 것이다.”¹⁴⁾

예배의 초텍스트성에서 ‘초(超)’에 해당하는 영어는 ‘transcendental’이다. “...을 넘어가다, 초월하다, 범위를 벗어나다”의 뜻이 있다. 그렇다면 초텍스트성이라는 말에는 어떤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가. 예배를 구성하는 텍스트는 예배공간, 시간, 예배자 등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 우리는 동일한 예배공간과 시간, 그리고 동일한 설교자가 제공하는 예배의 매뉴얼에 익숙해 있었다.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입장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는 예배가 제공하는 단일한 텍스트성 안에서 신의 이름으로 모이고 찬양하고 말씀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런 관습과 수행이 예배의 예배됨을 규정했던 필수요소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저항과 반감없이 받아들여 졌던 예배의 텍스트성이 온라인 예배에서는

13) Teresa Berger,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 안선희 역,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14) 위의 책, 269.

깨진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예배의 초텍스트성이 쌍방향적 특성을 지닌다는 테레사 베르거 주장은 타당하다. 단일한 텍스트성을 기반으로 드러지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일방적,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동안 예배 참여자의 다름과 차이는 예배라는 텍스트성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디지털 공간 속에 들어오면 개별과 이념들과 욕망들로 분유된다. 개별자들을 단일하게 묶었던 전통 예배의 영기는 디지털 공간에서는 달리 이해되고 적용된다. 기존의 예배가 정체성과 공동체의 신앙을 지지하는 영기에 기반한다면, 디지털 예배는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신앙의 입장에서 그것을 개진한다.

다시 벤야민으로 돌아가면, 그는 “사진 원판으로부터 여러 개의 인화가 가능하다. 어느 것이 진짜 인화냐고 묻는 것은 의미 없다”¹⁵⁾고 말하면서, 예술계의 아우라 지상주의를 비판하였다. 벤야민을 디지털 예배의 현상학에 적용하면 이렇다. “신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소환하는 예배는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 어느 것이 진짜 예배냐고 묻는 것은 의미 없다.” 이제 개별자를 단일한 믿음의 체계와 전통적 예배 안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쩌면 궁극적 실재와 궁극적 실재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차이의 놀이(play of difference)’¹⁶⁾, ‘타자의 얼굴(face of the Other)’¹⁷⁾을 통해 실재하는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디지털 예배는 전통 예배의 아우라를 파괴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왔다.

도래한 디지털 예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에게 베르거의 한 마디는 많은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디지털 미디어는 사실상 이

15) Walter Benjamin, *Illuminations* 224.

16) Jacques Derrida, *Positions*, translated and annotated by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26-27.

17)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김도형 외 역, 『전체성과 무한』, (서울: 그린비, 2018), 285-327.

지점에서 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선물을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다. 최소한 디지털 미디어는 수세기 동안 하나의 특정 프로토콜에 의한 제한, 다시 말해 단선적 사고와 도서 제작에다가 특권을 부여해 온 신학적 숙고에 비판적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예배, 기도, 그리고 헌신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그리고 상상력에 다시 주목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 자체가 어쩌면 성령의 역사하심일 수 있다는 주장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수 있다.”¹⁸⁾

테레사는 위의 글을 통해 디지털 예배의 도래가 교회의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는 점을 말한다. 화석화된 제도와 정형화된 문법에 매몰된 예배는 디지털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변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퇴화가 될지 진화가 될지는 우리가 예배갱신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치는지에 달렸다. 그 과정에 우리는 교회에서 드러지는 모든 예배의 궁극적 의미는 예배를 초월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성령을 믿는 예배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이번 장(예배의 재구성)에서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종교적 공간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달라진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후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의제를 좁혀갈 것이다. 코로나 19 달라진 종교적 지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예배를 디자인해야 하는가.

2) 미디어가 메시지다!

비대면 동영상 예배가 오래된 예배의 문법에 균열을 가하면서 차이와 타자의 영성을 지향하는 예배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18) Teresa Berger,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298.

면 차이와 타자를 섬기는 예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배에 참여하는 개별자들의 사연, 배경, 입장은 각기 다양하다. 그 다름을 하나로 묶어냈던 것이 전통 예배의 미덕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개별자들이 디지털 공간 안에 들어오면 개별 언어와 이념들로 나뉜다. 전통예배에서는 개별자들을 연속성 있게 묶을 수 있는 장치들이 효능을 발휘했으나, 불행하게도 디지털 공간에서 개별자들끼리는 불연속적이다. 그것을 전통적 방식으로 종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근원적인 것이 차이의 놀이(테리다), 복제가능성(벤야민)을 통해서 유통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매체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마셜 맥루언의 “미디어는 메시지를¹⁹⁾”라는 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예배개신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미디어는 내용과 메시지를 담은 그릇이고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메시지는 교회적으로 말하면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예배 전통에서는 복음이 절대적이었고 그것을 담는 방법과 형식은 부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디지털 공간에서는 그 관계가 역전된다. 메시지(복음)는 그것이 담겨지는 그릇에 담겨진 메시지(복음)인 것이지 메시지(복음)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현대 매체이론에서는 메시지가 담겨지는 그릇에 방점이 있다는 말이고, 이를 디지털 예배로 적용하면 매체환경의 변화에 맞게 복음도 다른 그릇에 담겨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순간 문득 벤야민이 다시 떠오른다. 기술복제시대의 대중에 대해 언급하면서 벤야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대중은 예술작품을 대하는 일체의 전통적 태도가 새로운 모습을 하고 다시 태어나는 모태이다.”²⁰⁾ 나는 벤야민의 발언을 디지털 예배 시대의 예배자를 소환하는 문구로 전

19) Herbert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김성기 외 옮김, 『미디어의 이해』, (서울: 민음사, 2002), 35.

20) Walter Benjamin, *Illuminations* 239.

환하고자 한다. “디지털 예배시대의 예배자는 예배를 대하는 일체의 전통적 태도가 새로운 모습을 하고 다시 태어나는 모태이다.” 바뀐 미디어 환경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지하는 예배자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벤야민은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수동적, 기계적, 타자화 된 예배가 아닌, 적극적, 창의적, 주체적 예배로 전환하여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영기를 품는 그릇으로 예배가 변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우리의 예배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 중심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예배참여자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예배보다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섬기는 예배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흐름은 유지하나 획석화된 순서가 아닌 예배 참여자들이 예배에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틈과 여지를 허락하는 쌍방향적인 예배에 대한 구상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디지털 부적응 세대에 대한 배려에도 우리는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배가 전통 예배에 익숙한 교인들에게는 폭력으로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 19는 예배갱신에 대한 많은 물음과 과제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

지금까진 나는 코로나 19시대 종교현상학의 이슈를 비종교사회의 도래, 종교적 아우라의 파괴, 예배의 재구성이라 지목하였고, 그에 따른 진술과 서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코로나 19시대 증상을 토대로 나는 기독교사회윤리의 테제를 3가지로 선정하여 본고의 후반부에서 조목조목 열거할텐데 그것들의 제목을 미리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속화시대와 함께하는 기독교사회윤리, (2)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기독교사회윤리, (3) 타자에 대한 환대를 지향하는 기독교사회 윤리

III. 코로나 19시대 기독교사회윤리

1. 세속화시대와 함께하는 기독교사회윤리

앞선 비종교사회 속 한국개신교 현상학을 다루는 장에서 나는 근래에 실시한 코로나 19 관련 인식조사와 2019년 개신교인 사회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개신교인들의 신앙패턴이 비종교사회 속에서 포괄주의 신앙형태로 접어들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정조는 본회퍼가 말하는 “하느님이라는 후견인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성인이 된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²¹⁾

본회퍼는 성인이 된 세계에서 그리스도는 과거의 종교적 권위와 영광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만약 그리스도교가 종교로 남아있고자 한다면, “하느님 없이,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더불어”²²⁾ 살겠다, 라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비종교화’(religionless Christianity)를 요약하는 말인데, 본회퍼는 비종교화가 함의하는 역설적 미학을 다음과 같이 분명한 언어로 표현하였다: “인간은 반드시 세속적으로(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신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방식을 따르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되는 것. 종교적 행위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세상적) 삶에서 벌어지는 신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²³⁾

본회퍼를 이어 세속화 시대 신앙과 윤리를 새롭게 도모하는 시도가 많이 등장했다. 이는 코로나 이후 기독교사회윤리를 다시 정초하려는 나에

21) Dietrich Bonhoeffer, *Letters & Papers From Pris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2), 326.

22) Ibid., 360.

23) Ibid., 361.

게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본회퍼의 비종교시대 윤리를 현대적 관점으로 적용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얼마 전 타개한 시카고 신학교의 테드 제닝스(Jennings), 해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자크 데리다(Derrida). 데리다의 이론을 신학적으로 접목한 존 카푸토(Caputo) 등이다.

테드 제닝스는 2018년 방한에서 ‘기독교 이후의 신학 (Post Christian Theology)’에 대해 몇 차례 강의를 하였다.²⁴⁾ 그는 본인이 주장하는 ‘기독교 이후의 신학’이 본회퍼로부터 시작되는 세속화 신학과도 맥이 닿아 있음을 명확히 한다. “(본회퍼의 비종교화, 세속화 신학은) 형이상학으로서의 기독교가 끝나고, 즉 하나님 자체에 대해 사변적으로 연구하는 종교적 기독교가 끝난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었다. 본회퍼는 종교 없는, 종교를 넘어선, 종교 밖의 기독교란 무엇일까 고민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단순히 참여하는 걸 넘어서서 세계의 상처입음 위에 서고 상처입음에 앞장서는 일에 대해 생각한 것이다.”²⁵⁾

위 발언에서도 보듯이 제닝스는 본회퍼에 이어 이러한 21세기 비종교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신학자이다. 『무법적 정의』에서 그는 “세속적인 그리고 심지어 비종교적인 지식인들과의 대화”를 도모한다고 밝힌다. 제도로서의 기독교와 기독교 담론이 아니라, ‘교회적인 해석을 하는 종교의, 심지어 학자들의 게토(ghetto) 바깥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고 제닝스는 주장한다.²⁶⁾ 결국, 제닝스 교수가 말하고자 했던 ‘기독교 이후의 신학’은 종교를 벗어나는 종교, 종교

24) 김지훈, 한겨레 신문, 2018.08.30, “노신학자의 예언, 기독교 없는 사회 올 것”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60032.html> (최종검색일 2021.4.12)

25) 이범진, 복음과 상황, 2019.09.20, “종교적 기독교의 끝에서 시작되는 기독교 이후의 신학” <http://m.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5> (최종검색일 2021.4.12)

26) Theodore W. Jennings, Jr. *Outlaw Justice: The Messianic Politics of Paul*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6-7.

밖으로 나아가는 종교, 혹은 종교 밖에서 침투하는 이질적인 것을 품는 종교라 할 수 있다.

나는 제닝스 교수의 ‘기독교 이후의 신학’을 접하면서 그가 자주 언급하는 해체주의 철학자 데리다(Derrida)의 아포리즘이 떠올랐다.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 the messianic without messianism”²⁷⁾이 그것이다. 데리다는 메시아주의(messianism)로 상징되는 존재론적 확신이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넣었으며 수많은 전쟁과 죽음을 가능케 했던 동인이었음을 자각한다. 이런 이유로 데리다는 메시아주의가 아닌 ‘메시아적인 것 the messianic’을 제안하였고, 그곳은 그 누구도 정착할 수 없는 탈영토화된 공간이다.

데리다의 해체론을 신학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존 카푸토(John D. Caputo)는 『종교에 대하여 On Religion』에서 지금 시대의 종교상황을 “Religion without Religion 종교 없는 종교”²⁸⁾이라 표현하였다. 자연으로서의 신은 인간의 믿음, 행위, 고백, 이성적 판단 안으로 수렴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능성들과 대립하는 불가능한 형식으로 도래한다. 신으로부터 기인하는 사건이란 신의 현재화를 드러내는 표식이겠지만, 한편으로는 현재화 될 수 없는 잉여를 남기며 미끄러져 가는 무엇이다. 그 결과 신은 현재화 할 수 없는 절대 미래, 절대 타자의 자리로 내몰린다.²⁹⁾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화된 종교를 뼈뼉하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실천적 차원의 진리를 종교가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이 카푸토가 “Religion without Religion 종교 없는 종교”를 말하며 내세웠던 바이다.

27) Jacques Derrida, “Faith and Knowledge” in *Acts of Religion*, Edited by Anidjar(New York: Routledge, 2002), 56-57.

28) John D. Caputo, *On Religion* (New York: Routledge, 2001), 132.

29) Jacques Derrida, “Faith and Knowledge” in *Acts of Religion*, Edited by Anidjar(New York: Routledge, 2002), 56-57.

나는 코로나 19 이후 요청되는 기독교사회윤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본회퍼 신학의 테제인 “하느님 없이, 하느님과 앞에서, 하느님과 더불어”로부터 시작하여 테드 제닝스의 ‘기독교 이후의 신학 Post Christian Theology’, 테리다의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 the messianic without messianism’, 카푸토의 ‘종교없는 종교 Religion without Religion’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찾았다. 이들은 공히 문명의 전환기를 맞아 믿음에 대한 과감한 신학적 상상과 도약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면서, 새 술은 새 술에 담아야 한다는 오래된 명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바른 믿음은 마술과 다르게 신을 인간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격하시키지 않는다. 코로나 19 시대 믿음은 신을 종교의 특별한 영역에 위치시키지 않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이라 증언한다. 그러므로 코로나 19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지고 계도화된 특별하고 경건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 개인의 탈속을 추구하지도, 혹은 본인의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지도 않는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간다. 나는 이를 ‘소아적 신앙생활에서 대승적 생활신앙으로의 전환’라 명명하면서 코로나 19시대 기독교사회윤리의 첫 번째 테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기독교사회윤리

중세 페스트와 관련된 그림을 한 장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 전에 잠시 페스트와 중세교회의 파국과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1300년대 페스트로 인해 유럽인구의 1/3이 죽음을 맞았다는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페스트가 꾸준히 창궐하였다. 그리스도교 특유의 회개(고백, 고해성사)의 교리가 강조되면서 발전하던 때가 이 시기였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중세교회는 파국을 맞는다.³⁰⁾

교회는 페스트 앞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중세교회의 운명을 단축시키는 꼴이 되었다.

한편 중세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페스트로 인한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는 장면도 존재했다. 그것을 다룬 것이 바로 작품이 ‘채찍질 고행단’이다. 흑사병을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고 여기는 무리들이 등장했고,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참회하는 채찍질이 페스트가 창궐하던 무렵 등장했는데, 프란시스 고야(1746-1828)의 〈채찍질 고행단〉(1812-1814)은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다,



〈그림 4〉 고야의 ‘채찍질 고행단’(46×73cm)

그림 가운데 긴 꼬깔 모자를 쓰거나, 하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상체를 드러난 남자들의 등에 채찍자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붉은 피가 등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하반신을 가린 흰 옷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이들은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그냥 저대로 아무데서나 자고 먹고, 채찍질로 인해 생긴 상처는 흑사병의 숙주가 되고 결과적으로 전염병을 널리 퍼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만다. 근대 화가인 고야는 중세 인간

30) 이상철, “중세, 죽음이 편재했던 시기”, 『탈경계의 신학』(서울: 동연, 2012), 208-213 참조.

들의 무지와 광신, 교회의 타락, 종교적 광기가 빚어낸 인간의 반이성과 잔인함을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했다.

문득, 전광훈 목사와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인 말과 행태가 이 순간에 오버랩 된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 22일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하였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 오히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 이만희 총회장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2월 21일(2020년) 신도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금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임을 안다”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이 자들의 말과 행동이 중세 페스트가 창궐하던 무렵 등장한 〈채찍질 고행단〉의 광신적 행위와 뭐가 다른가. 무엇이 이런 만행을 가능하게 하고, 무엇이 이런 광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이 대목에서 ‘중세의 페스트’와 ‘21세기 코로나 19’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중세의 신앙인과 현대의 신앙인을 같은 자리로 초대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페스트로 인해 등장한 죽음의 그림자 뒤에 의외로 합리주의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편재는 중세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면서 회의주의를 전파시켰다. 이는 인식론적으로 계몽주의와 이성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르네상스가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신적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인간 정신에 대한 찬양과 중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부터이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도 죽음의 폐허를 극복하려는 (신앙이 아닌) 인간정신의 발버둥이었다고 보면 맞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역병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려는 근대적 이성이 탄생한 셈이다.

지금까지 중세사회가 페스트 위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살피면서 코로나 19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예단을 하였다. 페스트로 인해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갔듯이, 코로나 19는 우리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삶의 패턴과 의식의 고양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준비와 진격을 재촉하고 있다. 이것이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역사철학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기독교사회윤리의 자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사회적 현상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 의심의 해석학에 기반해 기존 통념과 관행에 대한 비판적 성찰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독교 경전과 전통 속에 깃든 해방과 자유의 정의를 추구했던 기록을 통해 현실을 다시 전유하면서 실천하는 것이다.

3. 타자에 대한 환대를 지향하는 기독교사회윤리

본고 전반부 종교현상학을 다루는 장에서 아우라의 파괴와 종교적 공간의 초텍스트성과 쌍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나는 이러한 증상들이 세상을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를 분리하는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라 생각한다. 아우라의 파괴를 직면하면서 전통과 도그마와 이데올로기 안에 포획되었던 수많은 진리들이 해방되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타자(성)에 대한 발견과 성찰이 아닐까 싶다. 아우라의 파괴는 경전(텍스트)에 대한 권위의 훼손, 그로 말미암은 초텍스트적 행위로 나갈 단서를 제공하였고, 타자의 발견은 완고한 주객관계에서 쌍방향성을 강조하는 상호주체성으로의 관계전환을 요청한다.

1) 코로나 19시대 타자와 환대는 어떻게 왜 등장하나

코로나 19를 향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다른 코로나 19

현실에 대한 통찰은 ‘모든 인간은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지젝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공적 존재들의 요구에 좀 더 민감해져야 하며, 자기 이해를 새로운 의미로 정식화하여 그것들이 처한 곤경에 반응해야 한다. ... 인간은 그저 잠재적으로 무한정한 세력들의 네트워크 중 하나의 세력일 뿐이다.”³¹⁾ 세상은 이데올로기와 성과 계급과 문화와 종교와 자본에 따라 분리되어 있지만, 코로나 19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만든 모든 차이와 구분은 한낱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 같다.

중세 페스트가 교황과 왕과 봉건영주와 신부와 평민과 노예들에게 가리지 않고 번져나갔듯이, 코로나 19 역시 선진국, 후진국, 계급, 인종, 국가 가리지 않고 똑같이 퍼져나갔다. 물론 세상이라는 기차는 일등칸, 이등칸, 삼등칸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서 보호와 안전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전파속도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이어져 있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진리를 우리는 코로나 19를 통해 각성하게 되었고, 그것은 어처구니없게도 묘한 위안과 은혜로 내게 다가왔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타자적 공간과 사건에 대해 이토록 강한 끌림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가. 말로만 듣고 이론으로만 접했던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구촌 공동체, 우주적 존재로서의 개인 등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제목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생생하게 실재가 되어 귀환하였다. 인간이 타자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란 상호 주체적,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이고,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약하고 연약한 존재한다는 말이다.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철학적 혹은 문학적 수사로만 알았던 인간이란 타자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31) Slavoj Žižek,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강성우 역, 『팬데믹 패닉』(서울: 북하우스, 2020), 138.

는 지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타자적 존재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간 행위에 대한 문제가 윤리의 문제라고 했을 때, 코로나 이후 타자 본위의 삶을 지향하는 행위의 문제는 코로나 19 이후 기독교사회윤리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듯 데리다는 타자에 대한 환대를 거론한다. 그는 “환대가 스스로를 경계짓거나 연역해내지 않는다”고 말한 후에 “환대는 반대되는 것을 갖지 않는다. 알레르기, 거부, 외국인 혐오 등의 현상, 심지어 전쟁조차”라는 말을 남기면서 환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표현한다.³²⁾ 한 걸음 더 나아가 데리다는 환대를 통해 새로운 주체성의 요소로 발견하고자 한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지고함을 맞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주체화 자체이다. ... 그것은 주체성을 환대로서, 부정이 없는, 따라서 배제가 없는 분리로서 재정의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³³⁾

데리다는 환대를 근대성의 대표 상징어인 관용과 선을 긋기 위해 사용하였다. 데리다는 환대를 사용해 근대적 관용의 주체들을 비평의 제단 위로 소환하는데, 이는 관용의 주체가 서구 근대의 제국주의적 주체와 겹친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함이었다.³⁴⁾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들만 초대하여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동일성에 대한 확인, 혹은 확장이지 어떠한 변화도 도모할 수 없다.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관용의 주체는 자기 밖에 존재하는 타자에 대해서는 응징과 폭력을 가했던 주체이기도 했다. 유대인과 동성애와

32) Jacques Derrida, *Adieu: To Emmanuel Levinas*, translated by Pascale Anne Brault and Michael Naa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of Press, 1999), 50-51.

33) Ibid., 54.

34) Jacques Derrida, 'Hospitality, Justice and Responsibility: A Dialogue with Jacques Derrida', in *Questioning Ethics: Contemporary Debates in Philosophy*. Edited by R. Kearney and M. Dooley (New York: Routledge, 1998) 70.

식민지의 백성들, 여성과 이방인과 장애인을 향한 혐오와 적대의 현장에 어김없이 관용의 주체는 자리하고 있었다. 관용의 주체가 지녔던 어두운 과거를 간파했던 데리다는 이에 대한 엔티테제로서 환대를 말했던 것이고,³⁵⁾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의 주체성은 타자를 환대하는 주체로 한정하고자 제안한다.

데리다에 의하면 새로운 주체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낯선 타자를 향해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주체다: “문지방을 넘으라...내 안으로 오라, 내 안에 자리를 잡아라”³⁶⁾ 데리다의 발언은 코로나 19 정국에서 출몰한 국가주의의 도래와 관련하여 타자에 대한 환대와 적대를 놓고 고민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성찰적 물음을 제시한다. 코로나 19와 해묵은 국가주의 논란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겠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도래한 국가주의 앞에서: 환대인가? 아니면 적대인가?

코로나 19의 발생지로 중국 우한이 지목되자 중국은 국가적 방역에 대한 총동원령을 선포하였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 후 중국에서 소강상태로 접어든 코로나 19는 유럽과 북미 등 서방으로 빠르게 번져 사회적 재앙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중국은 성공한 자신들의 방역에 체제 경쟁적 해석을 부과하였는데, 그것의 골자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체제통합적 권위주의가 낫다는 내용이었다. 서방은 중국식 국가주의적 폐쇄가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에 있어 궁극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난하였고, 지책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논쟁을 키웠다. 지책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도래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국가주의 틀을 넘어 전 지구적

35) Jacques Derrida, *De l'hospitalite*,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4), 135.

36) 위의 책, 134.

연대와 환대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각 나라가 자기 맘대로”를 외치면서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하고 말이다.³⁷⁾

지젝은 코로나 19를 세계화의 한계와 종말을 지시하는 징후적 사건으로 파악한다. 자본의, 자본에 의한 전 지구적 재편은 국경의 해체와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해소시켜 하나 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나, 그 과정에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도태되고, 오직 자본의 논리만이 정언명법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전체주의를 탄생시켰다. 그 결과 오히려 시대가 거듭될수록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시민의 힘은 약화되었다고 지젝은 지적한다. 2008년 금융대란은 사실상 세계화의 종말을 고한 사건이었다. 이런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은 쉽게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적같이 도래한 코로나 19가 현 시스템에 대한 체질개선 혹은 대안적 가치에 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사회에 재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무방비로 노출되는 계층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사회 약자들과 타자들이 우선적으로 공동체에서 지워지고 도태되면서 고통의 한복판으로 몰렸다. 코로나 19 시대를 맞아 기독교사회윤리를 하는 우리는, 물론 바이러스의 정체를 묻고 따져야 하겠지만,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상상해야 한다. 타자를 향한 환대와 연대인지, 아니면 적대와 배제인지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중세 시대 페스트가 몰아친 후 유행했던 죽음의 무도와 같은 파국의 전망이-그것의 진위여부를 떠나- 우리사회에 번져버린 코로나 19 묵시록이 되었다. 우리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파국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가 지키고 사수해야 할 가치들이 불가항력적인

37) Slavoj Zizek, 『팬데믹 패닉』 89.

요소들에 휩쓸려 갈 때, 우리사회는 타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야만 앞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파국의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환대의 윤리를 작동시킬 수 있을까. 코로나 19는 타자에 대한 환대라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기독교사회윤리학의 테제로 무겁게 던지고 있다.

IV. 나가는 말

코로나 19가 사회적 전 분야에서 일으키고 있는 파국의 현상과 묵시적 예감은 우리시대 일상이 되었다. 종교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본 논문은 “코로나 19시대 종교현상학의 이슈와 기독교사회윤리의 테제들”이라는 제목아래, 전반부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종교현상학적인 접근, 후반부는 기독교사회윤리의 이슈들을 파헤쳤다.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다다른 지점은 한국개신교의 현실이었다. 코로나 19 정국에서 보이는 현실의 교회는 퇴행적이다 못해 사회악으로 비난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굳이 이 자리에서 전광훈과 이만희가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인 말과 행위를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 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중세 페스트가 창궐했던 무렵 등장했던 교회의 광신적 행위들이 생각났다.

물론 우리는 중세 ‘채찍질 고행단’처럼 채찍을 몸에 내리치고 회개하면 전염병을 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 그들과는 다른 계몽되고 지성적인 신앙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런가, 라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중세와는 다른 종류의 비이성과 무지와 광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SNS를 통한 가짜 뉴스, 각종 음모론과 루머, 그리고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발언과 행위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보다 빠르고 독하게 우리사회를 감염시키고 있다.

코로나 19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개신교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고, 비대면 예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부와의 갈등과 긴장 국면에서 교회는 미성숙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를 계도화하는 운명으로 몰아갔다. 특별히 코로나 19 정국에서 드러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외국인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무지와 외면은 흑사병의 원인이 쥐에서 기생하는 쥐벼룩이라는 것을 몰랐던 중세 교회 신자들이 부랑자, 유대인, 마녀들, 이방인 등이 페스트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집단적인 폭력과 학살을 자행했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중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전광훈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인들이다.

중세사회가 페스트 정국을 거치고 종교개혁을 지나 새롭게 태어났듯이, 21세기 사회와 교회도 코로나 19 정국을 거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것은 자기만의 성에 갇혀 고립된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행태에서 벗어나 세속화 시대에 걸맞는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한국사회와 교회에 팽배한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밝혀진 우리사회 약한 지점에서 재난상황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향한 적극적인 환대에 동참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막으려는 반동적 몸부림도 드세리라 본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 말처럼 코로나 19 이후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 것이다. 역사는 시대의 전환점에서 힘차게 도약했던 자들에 의해 세계와 교회가 갱신되어 왔음을 증언한다. 코로나 19는 도적과 같이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앞당겼고, 어쩌면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세계와 교회를 위한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징후를 인지하면서 기독교사회윤리는 코로나 19라는 문명대전환의 시기에 요동치겠지만 그럼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침반처럼 진리를 가리키는 행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길희성, 『신앙과 이성사이에서』. 세창출판사, 2015.
- 테리다, 자크. *De l'hospitalite*,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4.
- 레비나스, 임마누엘. *Totality and Infinity*, 김도형 외 역, 『전체성과 무한』 서울: 그린비, 2018.
- 맥루언, 마셜. *Understanding Media*, 김성기 외 역, 『미디어의 이해』 서울: 민음사, 2002.
- 베버, 막스. *Wissenschaft als Beruf*,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서울: 나남출판, 2013.
- 베르거, 테레사.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 안선희 역,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이상철, 『탈경계의 신학』. 동연, 2012.
- 지젝, 슬라보예.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강성우 역, 『팬데믹 패닉』 서울: 북하우스, 2020.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 주요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자료집』. 대한기독교서회, 2020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보고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
- Badiou, Alain, *Saint Paul*, translated by Ray Brassier,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2003.
- Benjamin, Walter Benjamin, *Illuminations*.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 Bonhoeffer, Dietrich, *Letters & Papers From Pris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2.
- Caputo, John D. *On Religion*. New York: Routledge, 2001.
- Derrida, Jacques. *Adieu: To Emmanuel Levinas*, translated by Pascale Anne Brault and Michael Naa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of Press, 1999.
- _____. *Acts of Religion*, New York: Routledge, 2002.
- _____. *Questioning Ethics: Contemporary Debates in Philosophy*, New York: Routledge, 1998.

_____. *Positions*, translated and annotated by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Jennings Jr, Theodore W. *Outlaw Justice: The Messianic Politics of Paul*.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김지원, UPI 뉴스, 2020. 04. 14, “현장 예배 언제 재개하나…교회 고심 깊어져”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4140109> (최종검색일 2021. 04.12)

김지훈, 한겨레 신문, 2018.08.30, “노신학자의 예언, 기독교 없는 사회 올 것”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60032.html> (최종검색일 2021. 4.12)

도재기, 경향신문, 2010.02.27, “주일예배 중단, 개신교인 71%가 찬성, ‘한목합’ 등 여론조사 결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1755001&code=960100 (최종검색일 2021. 04.12)

이범진, 복음과 상황, 2019.09.20, “종교적 기독교의 끝에서 시작되는 기독교 이후의 신학”
<http://m.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5> (최종검색일 2021.4.12)

최경배, CBS노컷뉴스, 2020.04.10, “코로나 19 사태 개신교인들의 인식 변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325917> (최종검색일 2021.04.12)

Yuval Noah Harari, Financial Times, 2020.03.20, “The world after coronavirus”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최종검색일 2021.4.12.)

논문투고일: 2021년 02월 26일

심사개시일: 2021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21일

• 국 문 초 록 •

코로나 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있는 충격과 파장의 근원이 되었다. 종교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은 “코로나 19시대 종교현상학의 이슈와 기독교사회윤리의 테제들”이라는 제목아래, 전반부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종교현상학적인 접근, 후반부는 기독교사회윤리의 이슈들을 파헤친다.

종교현상학적인 접근은 코로나 19 시대 한국 개신교인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다. 개신교인의 신앙패턴이 코로나 19를 계기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나는 코로나 19 이후 종교현상학의 특징을 1) 비종교사회의 도래, 2) 종교적 아우라의 파괴, 3) 예배의 재구성이라 요약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예배의 중단과 파행은 한국사회가 비종교사회 문턱으로 진입한 사건으로 읽힌다. 본회퍼의 “하느님 없이,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더불어” (Before God, with God, without God)발언은 코로나 19 이후 비종교사회를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 본다. Covid-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증가는 기존 예배가 지녔던 아우라를 붕괴시켰고, 기존의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던 예배는 달라진 매체 환경 속에서 상호소통과 그에 따른 예배 형식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 종교현상학적인 분석을 마친 후 나는 기독교사회윤리차원에서 Covid-19 시대를 향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제안할 것이다: (1) 세속화시대에 걸맞는 기독교사회윤리, (2)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를 극복하는 기독교사회윤리, (3) 타자를 향한 환대의 윤리.

주제어: 코로나 19, 기독교의 비종교화, 아우라의 파괴, 기독교사회윤리, 타자, 환대
